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작품

화 합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최 혜 윤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 화 합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최 혜 윤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 화 합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최 혜 윤

최혜윤의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을 인준함

2021년 12년 일

심사위원장 강 관식(인)

심사위원 김 선태(인)

심사위원 김 정현(인)

# 최예운 ‘화암’ 역사학위 청구전

Instagram:  | choi\_hye yune  
Email:  | 7170choi@naver.com  
Phone:  | +82 010 2008 4641

갤러리 일호  
2021. 11. 24.~30.  
서울 종로구 삼청로 127-2  
(02-6014-6677)

#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반짝인다

## 류동현 미술 비평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데에는 작품이 드러내는 형식이나, 내용, 역사, 작가의 내적 상황,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 작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방법도 작품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된다. 이를테면 동생 테오와의 편지 등 문헌자료 등을 통해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작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러하다. 최혜윤 작가의 작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작업 자체의 분석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작가의 경우 작가로서의 이력이 이른 나이에 시작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환경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작가가 아닌 인간 최혜윤의 삶은 스펙터클하다. 어렸을 때부터 화가의 꿈을 꾸었지만, 삶의 무게는 작가로 하여금 직장인의 삶으로 이끌었다. 공간연출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광고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외 파견 근무도 하고 대학교에 출강도 했으며 이후 대학교의 기술지주회사에 재직하면서 화가의 꿈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 꿈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켠에서 계속 피어 올랐고, 결국 작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2017년 봇을 잡기로 한다. 1)

작가가 처음으로 주목한 작품은 <동궐도>였다. 국보 제249호인 <동궐도>는 경복궁 동쪽의 궁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감(鳥瞰)의 방식으로 그린 기록화다. 단색의 먹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문인화와는 달리 선명한 색채를 통한 기록화의 화풍이 작가에게는 동시대의 디자인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이렇듯, 전통 회화 중 채색화, 이른바 선명한 색채로 그린 진채화에 '꽃힌' 작가는 나아가 <동궐도>를 모사(模寫)해 보고자 했다. 전통회화를 가르쳐주는 대학교의 취미반에 등록을 하고 도구나 기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러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식은 작가에게 맞지 않았다. 사실 나이가 들고 무엇인가를 배울 때, 기초부터 배우는 방식보다는 하나의 대상을 마스터 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최혜윤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갔다. <동궐도> 모사를 통해 채색화의 방법을 배워나간 것이다. 본래 크기의 3분의 1 크기로 모사한 이 작품은 2017년 개최한 제1회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전국민화공모대전 전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이후 작가는 본격적으로 작업 세계에 발을 디딘다. 전업작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늦었지만 재능을 인정받은 작가는 곧바로 초상화 작업을 의뢰 받았다. 같은 해 제작한 <우보 초상>은 전통 채색화의 방식을 따르면서 세밀하게 제작한 역작이다. 특히 인물의 뒤에 위치한 지구의 바닥의 카펫은 흡사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속에 묘사된 오브제처럼 세밀함을 드러낸다.

최혜윤의 작업은 전통 채색화의 기법을 따르지만, 동시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는 작가가 이른바 오서독스(orthodox)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미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사진가인 데이비드 라샤펠의 2011년작인 <Earth Laughs in Flowers>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물화 시리즈'는 화려한 꽃, 오브제와 더불어 짙은 파란색의 배경, 흡사 안나 수이(Anna Sui)의 디자인을 차용한 듯한 액자와 어울려 동양적 정서와 서양적 감성이 작품 속에 혼재한다. 최혜윤의 회화는 전통적인 화조화와는 다르지만, 동양화 속에 내재한 생명이나 자연미, 복을 기원하는 의미와 16세기 서양에서 발달한 바니타스(vanitas) 그림이 지니는 '메멘토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즉 '죽음 앞의 겸손'이라는 상반된 의미가 혼재해 있는 기묘한 감성을 뿐어낸다.

과거부터 꽃을 화려함과 개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좋아했던 작가는 이후 꽃들로만 이루어진 '부케 시리즈'로 나아갔다. '정물화 시리즈'에서 발전한 '부케 시리즈'는 파란색 배경에서 나아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좀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이 도드라진다. 이에 비해 다음 시리즈로 선보인 '담쟁이 시리즈'는 이전 시리즈의 개성과 화려함보다는 생명과 조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한다. 벽이라는 삶을 서로 도와가며 기어오르는 담쟁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반추한다.

2021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 일호에서 열리는 최혜윤의 개인전 <화합> 전시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작업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데이비드 라샤펠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시도>, 2020년 개최한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분에서 입상한 <풍요>를 비롯해 <변함없는>, <고마움>, <새로운 시작>의 '정물화 시리즈', <행운>, <믿음>, <부귀>, <정열> 등 구복과 기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케 시리즈',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담쟁이 시리즈' 등 작가의 '식물' 시리즈가 종합적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화합'이라는 전시 제목이 작가의 작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합'은 작가의 삶에서 일상과 작업이 만나고, 작가의 작업 속에 동양과 서양이 혼재하고, 삶의 여러 관계가 어우러진, 사전적 의미의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和合' 일 수도, 꽃이라는 대상에 천착하는 '花合' 일 수도, 이 모든 것이 학학적으로 섞여 새로운 방향을 드러내는 '化合' 일 수도 있다. 결국 한글로 쓴 '화합'이라는 제목을 통해 인생과 작업,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의 양가적 의미와 작업에 대한 특이점,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업을 시작한지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한성대 대학원 회화과에 진학해 더욱 전문적인 작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최혜윤의 작업은 더욱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보인다. '식물' 시리즈에서 나아갈 작업의 발전에는 이미 구축한 삶의 경륜, 자신만의 취향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혜윤 작업이 드러내는 작업의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혜윤 작업에서 재료는 채색화라는 작품의 형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작업의 주제를 드러내는 주요 요소로도 이용이 된다. 비단이나 금박 등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화려함과 깨끗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담쟁이 시리즈'에서 선보인 화면 바탕의 벽을 표현한 금박은 삶이 소중하다는 일종의 은유다. 전통 채색화에서 석채는 다양한 광물에서 색을 얻는다. 가루로 이루어진 석채로 비단이나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하나하나의 가루에서 빛을 발한다. 과거 직장인의 각박한 삶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발견한 작가는 어느 날 길을 걸으며, 세상을 느끼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한다. 2) 주위를 넓게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석채도 마찬가지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석채 가루가 모여 하나의 형상이 되고, 내용을 드러낸다. 그리고 빛을 발한다. 즉, 작가는 이러한 형상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석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형상을 이루는 사소한 매체이지만, 이들이 모여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렇듯 세상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작가는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빛이 난다고 말이다.

NPC라는 단어가 있다. 'Non-Player Character'라는 단어의 줄임말인 이 단어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용어사전에 따르면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 플레이어에게 퀘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우미 캐릭터"를 뜻한다. 주요 인물이 아니지만, 게임 속 세계가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아마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세계의 뉴스를 장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주목받지 못하는 이른바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숨은 주인공들일 게다. 근래 공개한 영화 <프리 가이>는 이러한 NPC가 주인공이 되어 게임 세계를 뒤바꿔 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사소함'에 주목하고 있다. 최혜윤이 작업을 통해 동시대성을 획득하고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또한 바로 이 지점이다.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 꽃과 담쟁이, 작업을 통해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반짝인다고 말이다.

주

1) 2021년 10월 22일 작가와의 인터뷰 중에서

# 작가노트

## 최혜운

나의 인생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누구도(인생을 견딘 또는 견디는 모든 이들) 예외 없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로 화려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헌정하는 작품으로 직관적 이미지가 강조된 작업을 하고 있다.

나의 그림이 인생을 견딘/견디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임을 만끽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겨울

### ● 작업 배경 :

인생을 통해 경험이 쌓이다 보면 기존의 가치관이 혼들리는 마음의 지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느 순간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잊고 지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유시간' 을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 지탱해오던 개인적 가치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개인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고통은 스스로 감당하며 버티기가 힘들었지만, 이윽고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개인적 가치관을 다시 정비하게 되었다.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보다는 인생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넓어졌고 삶에 대한 겸손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 ● 소재에 따른 두 가지의 작업 시리즈 :

첫 번째 '화조화' 시리즈는 기쁨과 환희를 담아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을 꽃 소재로 작업하였다.

특히 깨끗함과 다양한 색감을 품은 꽃들은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좋은 소재였다.

또한 꽃(개개인의 '개성')의 화려함을 표현함에 있어 가공없는 원색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개성'의 찬란함을 극대화 하였다.

두 번째 담쟁이를 소재로 작업한 시리즈는 작은 벽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여린 담쟁이들의 '생명력' 과 '인생' 을 표현한 것으로, '벽' 을 우리가 부여 받은 '삶' 으로 비유한다면 그 '삶' 을 '금' 재료로 사용하여 고귀한 선물임을 나타냈고, 그 위를 각 인생의 인연들과 함께 얹히고설키어 올라가는 여정을 '담쟁이' 소재로 묘사하였다.

### ● 재료 :

나의 작업에 있어 옛 부터 귀한 재료인 '석채' 와 '비단' 은; 화려함과 깨끗함을 표현하기에 탁월했다.

특히 '석채' 천연원색의 아름다운 색감과 명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커서 빛을 받으면 재료 본연의 반짝임을 더욱 발산하는데, 이는 나의 작품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였다.

즉 인생의 어두운 부분일지라도 결코 초라하거나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님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담쟁이' 시리즈 '금' 작업의 경우;

자칫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금박의 반짝거림을 비단 뒤에 배체함으로써 은은한 금빛을 나타내었으며, 금박 특유의 자국을 보완함과 동시에 오묘한 토톤의 느낌을 살리고자 앞면에 여러 채색작업을 병행하였다.

●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색채의 특성 :

나의 모든 그림의 배경과 그림자는 주제되는 이를 꾸며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 또 하나의 중요한 개체로 인지된다. 그리고 도발적이며 유희적인 다색화법으로 모든 공간을 풍부하게 작업한다. 또한 소재들을 화면 가득히 총총이 쌓아 풍성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인위적으로 채도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작품의 양감 및 명암묘사에 있어 최대한 먹(흑색)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들의 다양한 색감으로 바림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하였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 주인공임을, 결코 어느 하나도 초라하거나 작은 역할이 아님을 직관적인 색감으로 나타내고 싶었다.

● 전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의 :

서양화에 익숙한 나는; 한국화를 접할때마다 세련되지 못하고 단순한 색감의 그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우연한 계기로 '동궐도'를 접하고 디자인적인 세련된 감각의 다양한 색감이 들어간 그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좀더 '진채화'를 공부하게 되었다.

다양함이 존재하는 지금 전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1. 편협된 한국화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한국화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며,
2. 이를 위하여 나의 작품에 동서양의 여러 요소를 융합 발전시켜 좀 더 도화적이고 도발적인 '한국의 화조화'를 새롭게 선보이고 싶다.

2021년 겨울



Instagram  | choi\_hyeyune  
✉ | 7170choi@naver.com  
📞 | +82 010 2008 4641



<시도> still life series-라샤펠, 2018, 석채, 천연재료, 비단, 79cm x 61cm



화 턱 [  
bouquet series #1  
2019. 36x28cm oil on panel

<행운> bouquet series-모란7송이, 2019, 석채, 천연재료, 비단, 36cm x 28cm



〈풍요〉 still life series-赤 다알리아, 2020, 18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139cm x 99cm



<변함없는> still life series-白아마릴리스, 2020, 18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126cm x 79cm



<믿음> bouquet series-21P, 2021, 석채, 천연재료, 비단, 60cm x 40cm



<여배우> bouquet series-21M, 2021, 석채, 천연재료, 비단, 60cm x 40cm



<깨끗한> bouquet series-白작약, 2021, 석채, 천연재료, 비단, 125cm x 125cm



<드라마> bouquet series-아마릴리스 2021(M), 2021, 석채, 천연재료, 비단, 100cm x 80cm



<부귀> bouquet series-Gold/작약, 2021, 18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140cm x 98m



<고마음> still life series-카네이션, 2021, 18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70cm x 53cm



〈새로운 시작〉 still life series-스위피티, 2021, 24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83cm x 68cm



〈정열〉 bouquet series-검붉은 부케, 2021, 18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95cm x 70cm



<두 개의 그림> Layer 2020, 2020, 석채, 천연재료, 비단, 35cm x 27cm



〈조심〉 화조화 - 글라디올러스, 2021, 석채, 천연재료, 비단, 130cm x 70cm



<여정1> 담쟁이 시리즈, 2020, 24K, 18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78cm x 50cm



〈여정2〉 담쟁이 시리즈, 2020, 24K, 18K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78cm x 50cm



YOUNG UNIVERSITY

<여정3> 담쟁이 시리즈, 2020, 24K, 18K, white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60.5cm x 78.5cm



<여정7> 담쟁이 시리즈, 2020, 24K, 18K, white gold leaf, 석채, 천연재료, 비단, 39cm x 20cm



Instagram | choi\_hyeyune  
✉ | 7170choi@naver.com  
📞 | +82 010 2008 4641

## 나 의

모든 그림의 배경과

그림자는 주제되는 이를 꾸며주기

위안 도구가 아닌 또 아나의 중요한 개체로

인지된다. 그리고 도발적이며 유익적인

다색화법으로 모든 공간을 풍부하게 작업한다.

또한 소재들을 보면 가득이 증증이 쌓아 풍성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인위적으로 깨도를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작품의 양감

및 명암묘사에 있어 최대한 먹(흑색)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들의 다양한 색감으로 바림하여 와려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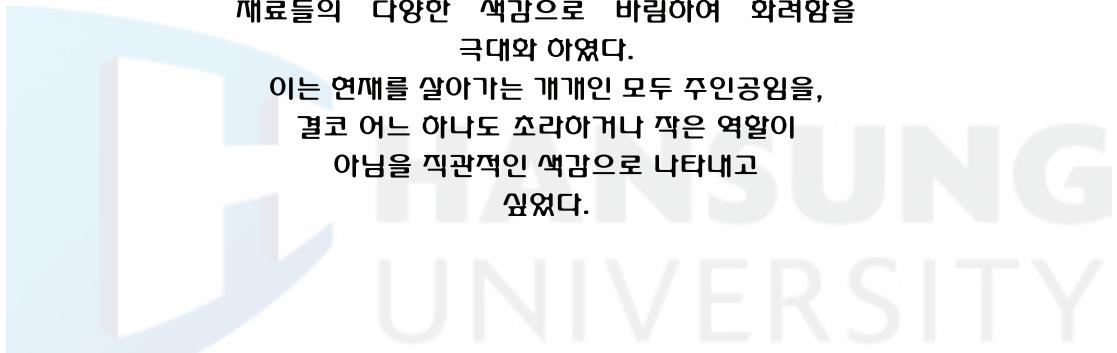
극대화하였다.

이는 연재를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 주인공임을,

결코 어느 아나도 초라하거나 작은 역할이

아님을 직관적인 색감으로 나타내고

싶었다.



인생을 통해 경험이 쌓이다 보면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마음의 지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느 순간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잊고 지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유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그 동안 지탱해오던 개인적 가치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개인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고통은 스스로 감당하며 버티기가 힘들었지만, 이후로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개인적 가치관을 다시 정비하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보다는 인생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넓어졌고 삶에 대한 경순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서양화에 익숙한 나는; 한국화를 접할 때마다 세련되지 못하고 단순한 색감의 그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우연한 계기로 ‘동궐도’를 접하고 디자인적인 세련된 감각의 다양한 색감이 들어간 그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좀더 ‘진채화’를 공부하게 되었다.

나의 작업에 있어 옛부터 귀한 재료인 ‘석채’와 ‘비단’은;

화려함과 깨끗함을 표현하기에 탁월했다. 특히 ‘석채’ 천연원색의 아름다운 색감과 명도가 낮을 수록 입자가 커서 빛을 받으면 재료 본연의 반짝임을 더욱 발산하는데, 이는 나의 작품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였다. 즉 인생의 어두운 부분일지라도 결코 초라하거나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님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금’ 작업의 경우; 자칫 가볍게 보일 수 있는 금박의 반짝거림을 비단 뒤에 배체함으로써 은은한 금빛을 나타내었으며, 금박 특유의 자국을 보완함과 동시에 오묘한 투톤의 느낌을 살리고자 앞면에 여러 채색작업을 병행하였다.

나의 인생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누구도(인생을 견딘 또는 견디는 모든 이들) 예외 없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로 화려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헌정하는 작품으로; 직관적 이미지가 강조된 작업을 하고 싶었다.

나의 그림이 인생을 견딘 / 견디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임을 만끽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부 록



# 우리문화신문

배달 삶꽃 기별

## [갤러리일호] 최혜윤展 '화합'

금나래 기자 narae@koya-culture.com

등록 2021.11.20 11:06:45

[우리문화신문= 금나래 기자] 2021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 일호에서 열리는 최혜윤의 개인 전 <화합> 전시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작업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데이비드 라샤펠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시도>, 2020년 개최한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분에서 입상한 <풍요>를 비롯해 <변함없는>, <고마움>, <새로운 시작>의 '정물화 시리즈', <행운>, <믿음>, <부귀>, <정열> 등 구복과 기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케 시리즈',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담쟁이 시리즈' 등 작가의 '식물' 시리즈가 종합적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화합'이라는 전시 제목이 작가의 작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합'은 작가의 삶에서 일상과 작업이 만나고, 작가의 작업 속에 동양과 서양이 혼재하고, 삶의 여러 관계가 어우러진, 사전적 의미의 '화목하게 어울린다'는 '和諧'일 수도, 꽃이라는 대상에 천착하는 '花癖'일 수도, 이 모든 것이 화학적으로 섞여 새로운 방향을 드러내는 '化合'일 수도 있다. 결국 한글로 쓴 '화합'이라는 제목을 통해 인생과 작업,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의 양가적 의미와 작업에 대한 특이점,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업을 시작한지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한성대 대학원 회화과에 진학해 더욱 전문적인 작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최혜윤의 작업은 더욱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보인다. '식물' 시리즈에서 나아갈 작업의 발전에는 이미 구축한 삶의 경륜, 자신만의 취향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 류동현 미술 비평



나의 인생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누구도 (인생을 견딘 또는 견디는 모든 이들) 예외 없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로 화려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헌정하는 작품으로 직관적 이미지가 강조된 작업을 하고 있다.

나의 그림이 인생을 견딘, 견디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임을 만끽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 작가노트

- 작가약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공간연출디자인 석사 졸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입학

- 개인전, 그룹전

2018 그룹전 : Korea Folk painting group exhibitions, Thuiluer Galerie, France (2018.6.29.~7.11) 주관 - (사)

한국민화진흥협회

2018 개인전 : serendipity prologue 갤러리 일호, 서울 (2018.12.5.~10)

2019 초대전 : 제3회 대한민국민화아트페어\_SETEC, 서울 (2019.6.13.~16) 초대기관 - 가일아트

2019 그룹전 : 진채의 정수 초상, 갤러리이즈, 서울 (2019.7.10.~16) 주관 - 한국진채연구회

2019 그룹전 : 세화전, 한옥갤러리, 서울 (2019.12.12.~24) 주관 - 한국진채연구회

2020 그룹전 : 2020한성한국화전\_묵과색의공감, 갤러리이즈, 서울 (2020.9.23.~ 28) 주관 - 한성대학교 동양회학과(한성대동문전시)

2021 그룹전 : ART FESTIVAL IN FRANCE PARIS, GALERIE PHD, France (2020.5.4.~10) 주관 - 자미전시기획

2021 초대기획전 : 천연석채의 빛깔, 무우수 갤러리, 서울, (2021.6.30.~7.25) 주관 - 무우수 갤러리

### • 수상

2017 제1회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전국민화공모대전 전통부분 최우수상 수상 (2017.5.17.~23)

2018 제33회 통일맞이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특선 수상

2018 제2회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전국민화공모대전 창작부분 장려상 수상 (2018.5.30.~6.5)

2020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분 한국화 입상 주관 - 한국미술협회

### <전시안내>

- 전시제목: 화합
- 참여작가: 최혜윤
- 전시기간: 2021. 11. 24 (수) - 11. 30 (화)
- 관람시간: 10:30 - 18:00 (11. 30(화) 오후 1시까지, 월요일 휴무)
- 전시장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27-2, 갤러리일호
- 작품목록: <https://blog.naver.com/galleryilho/222571666615>